

노·사·정이 바라는 대학의 역할

# 수준높은 직업능력 개발을 기대한다

하 형 소

노동부 고용관리과 사무관



## 1.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

우 리나라는 최근 외환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본격적 구조조정으로 '98년 4월말 현재 147만 명(6.7%)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1999년에는 16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 이후에는 130~140만 명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급증하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 창출(공공근로 사업, SOC 투자, 벤처기업 육성 등), 생계 지원(실업급여, 생활자금 대부 등)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특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장래 다양한 산업수요에도 대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IMF 금융지원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향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어느 정도의 고실업은 지속될 전망이므로 확실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해야 실업의 위험을 줄이고, 실업에 처했을 때 재취업이 용이해진다. 또한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꾸준한 직업능력 개발이 필수적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고실업시대에는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실업자의 능력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실업자와 인력개발 기관(대학, 기업체, 직업훈련기관)이 능

력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가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은 우수한 시설과 교수진을 보유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력개발의 산실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실업자들이 대학에서의 직업능력 개발을 희망하고, 대학이 이에 참여한다면 실업자에게 수준높고 다양한 훈련을 실시할 수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학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왔다.

## 2. 대학의 참여 현황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중 대학과 관련된 것으로는 '일반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시범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있다.

'일반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지방

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과정으로, 실업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만 있으면 모든 과정을 대학이 개설할 수 있다. '시범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산업 수요에 부응하고 취업과 연계된 우수한 실직자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실업자에게 제공하며, 고학력 사무관리직을 위한 고급과정 등 실업자 훈련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실업자 능력개발 사업'은 '98년 5월 30일 현재, 97개 대학이 551개 과정을 개설하여 8만 명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방 노동관서에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중 3만 명은 이미 개설된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많은 실

(표) 대학의 시범 교육 훈련 과정 예시

대 학	과 정	훈 련 기 간	연 락 처
경 회 대	셀애니메이션	'98. 9~'99. 2	02-961-0872
서 강 대	홍보 전문가	'98. 7~11	02-705-8718
서 울 대	고급 CAD 과정	'98. 7~9	02-880-5083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	'98. 7~9	02-880-5083
서 울 산 업 대	시각디자인 벤처	'98. 6. 29~8. 21	02-970-6181
성 균 관 대	전자상거래와 EDI	'98. 8. 31~12. 14	02-760-1139
숙 명 여 대	소프트웨어 공학	'98. 9~12	02-710-9141
연 세 대	박물관 교육전문가	'98. 1. 13~12. 31	02-361-3581
	유통관리자 과정	'98. 1. 13~12. 31	02-361-3581
이 화 여 대	국제회의 전문가	'98. 7. 15~'99. 1. 15	02-361-3188
경 남 정 보 대	자바 프로그래머	'98. 8~11	051-324-5555
동 의 대	GIS 자료분석	'98. 7. 8~9. 7	051-890-1947
경 북 대	고분자기술	'98. 7. 1~9. 30	053-950-5072
인 하 대	텔레마케터	'98. 7. 6~8. 28	032-860-8291
호 남 대	프로젝트 개발	'98. 9. 1~'99. 2. 28	062-940-5890
대 전 산 업 대	시스템 설계	'98. 7. 1~8. 24	042-630-0257
강 원 대	수치자료 작성	(3개월)	0361-250-6061

업자가 대학에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현재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과정은 산업수요 분석에 의한 취업 가능성을 반영한 과정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던 직업능력 개발과정을 그대로 개설하는 사례가 많아, 과정 이수후 실업자가 실제로 취업하는 데 기대 이하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대학으로 하여금 실제 취업과 연계되고 미래의 직업수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고려한 '시범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도록 추진한 바, 85개 대학이 신청하여 54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98년 7월부터 과정이 개설된다(〈표〉 참조).

### 3. 대학의 역할

노동부는 대학이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실업자의 재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인적 자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선두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 ① 최고경영자(총·학장)의 적극적 관심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환경상, 실업자를 위한 특별과정 개설에 필요한 강의실, 교수진, 프로그램 개발 등은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대학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요망된다.

#### ② 수준높은 능력개발 과정 개설

기존의 훈련기관(공공, 사업내, 인정훈련기관, 학원 등)에서 개설중인 분야(제조업,

정보처리, 미용 등)를 뛰어넘어, 고급 화이트칼라 실업자를 위한 과정과 첨단산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여 다른 기관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고학력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 담당기관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③ 현장 중심의 과정 운영

실업자들은 대부분 기존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므로,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론 중심의 교육은 실업자에게 호응을 받기 힘들다. 따라서 실업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식 위주의 과정 운영이 중요하다.

#### ④ 실업자의 취업 지원

실업자가 직업능력 개발과정을 수강하는 이유는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대학내 취업정보센터가 그 대상을 확대해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실직자 프로그램 이수자의 취업에도 적극 지원해 줄 때,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실효성있게 지속될 것이다.

#### ⑤ 산학협동체제 구축

실업자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향후 2~3년간 실시하다가 종료될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조체제를 상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대상을 근로자, 실업자, 지역주민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

하형소/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제38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다. '95년부터 노동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능력개발과를 거쳐 현재 고용관리과에서 재직중이다.